



CEO Brief

2021.09. 제2021-15호

CEO Brief는 보험산업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보험회사 CEO와 유관기관의 기관장분들께만 제공되는 리포트입니다.

Next Insurance (IV): 위험의 진화와 보험산업

보험연구원은 한국 보험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향후 경영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Next Insurance” CEO Brief 시리즈를 마련하였습니다.

요 약

기후 변화로 재난의 손실 보전 및 사전 예방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요구되고, 디지털 환경에 따른 비대면 활동의 일상화로 개인 일상생활과 사이버 위험의 수요가 증가함. 새로운 위험 수요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보험산업은 디지털 활용·데이터 역량을 강화하고, 공급자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재보험 및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재난 위험 관리를 위한 공·사 협력을 모색함. 마지막으로 보험산업이 예방을 통한 적극적인 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헬스케어서비스 활용에 대한 정책 지원과 기업 경영의 위험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이 요구됨

1. 위험의 진화

- 기후 변화와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따라 그동안 노출 정도가 낮았거나 거의 없었던 위험에 대한 노출이 빈번해 지거나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험의 보장 수요도 달라질 것임
- 기후 변화에 따라 재난 발생이 확대되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재난 손실의 사후 복구는 물론 사전 예방과 관련한 개인 및 기업의 위험 관리와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가 증가함
 -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화재, 붕괴, 폭발, 미세먼지, 가축 전염병·글로벌 감염병 확산 등으로 사회재난이 확대되면서, 재난의 손실 회복 및 사전 예방을 위한 공·사 협력 강화가 요구됨
 - 팬데믹을 계기로 만성질환의 우려와 관심이 전염성 높은 질환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건강위험에 대한 수요가 질병의 치료에서 예방을 포함하는 일상의 건강관리 수요로 확대됨
 -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경영·위험 관리 중요성이 확대되고, 특히, 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안전성 확보와 위험 관리가 사회적 과제로 부상함
-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개인 일상생활과 사이버 공간의 위험보장 수요가 확대됨



CEO Brief

- 개인의 삶이 일상생활과 웰빙 중시로 전환되면서 미래 위험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자주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장 수요가 증가함
-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이 비대면·온라인 기반으로 이뤄지면서 디지털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2. 보험산업의 과제

- 보험산업에서 새롭게 확장된 위험은 성장의 기회인 동시에, 해결해야 할 여러 도전 요인들이 존재함
 - 새로운 위험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 새로운 공급자의 출현에 따른 경쟁 구도 변화, 규제 장벽 등은 보험산업에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의 검토가 필요함
 - 현실적인 여건이나 규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보험산업이 감내 가능한 이상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 협력 및 정책적 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먼저, 새로운 위험의 보장과 예방 수요를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디지털 활용 및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공급자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데이터 역량)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 수요 파악, 맞춤형 상품 개발, 디지털 기반의 상품·서비스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역량 및 디지털 활용 능력이 요구됨
 - (파트너십) 보험회사는 기존 공급자 및 신규 진입자와의 협업을 통해 공급망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하고, 전문사업 파트너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경쟁 역량 제고를 도모함
- 한편, 재난 위험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자율적인 보험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국가 재보험 및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재난 위험 관리를 위한 공·사 협력을 강화해야 함
 - (국가재보험) 재난보험 공급의 지속성·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국가 재보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 재보험의 재원조달, 재난 위험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법률 제정 등을 검토함
 - (인센티브) 보험회사는 재난보험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보험료 감면제 등)를 병행하여, 재난 위험을 미리 대비하거나 기업이 위험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함
- 마지막으로, 보험산업이 예방을 통한 적극적인 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헬스케어 서비스 활용에 대한 정책 지원과 기업 경영의 위험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이 요구됨
 - (정책 지원)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비의료기관의 헬스케어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법·제도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이 추진되고, 국민 건강증진과 예방사업에 대한 공·사 협력을 강화함
 - (민관 협력) 경영환경·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확대함



CEO Brief

〈표 1〉 보험산업의 과제

구분	추진 내용
디지털·데이터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맞춤형 상품·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공급자 간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사업 파트너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급망의 다양성·포용성 확대
재난관리 공·사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재보험 운영을 통해 재난보험 공급의 지속성·안전성 확보• 재난보험 운영 시 위험예방·위험관리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활용
위험 예방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및 민관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제도의 모호성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국민 건강증진·예방사업에 민간부문의 투자·진출로 민관 협력 강화• 기업의 경영 위험관리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정성희 연구위원
shchung71@kiri.or.kr